

금성강단

발행인 : 이성오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로10길 5-3

전화 : 2661-1045, 1004, 1009

팩스 : 2662-0206

홈페이지 : www.kumsung.org

교회표어

성령의 충만으로 증인의 사명을 다하는 교회된다.

(행 1:8)

부제 :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마 5:13-14)

목회방향

1. 복음을 전하여 제자를 삼고,
2. 주님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며,
3. 성도들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는
4. 건강한 교회, 건강한 교인.

[2020년 4월 12일 금성교회 주일예배설교]

본문 : 롬 8:34-39, 고전 15:50~58

제목 : 부활의 신앙 · 승리하는 성도(2)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 :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롬 8:37)

※ 매주 발간되는 금성강단은 주일 낮 예배 설교입니다.
이 소식지를 통해 주님을 더 잘 알기 원하시는 분이나
다른 분에게 보내고 싶으신 분은 금성교회에 연락해 주
시면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인 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공포 가운데 가장 큰 공포는 죽음의 공포입니다. 참 무섭습니다. 이런 이유로 죽음의 공포는 악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인류역사상 수많은 독재자들이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적들을 제거할 목적으로 죄를 뒤집어씌우면서 옥에 가두고 고문도 했습니다. 이 죽음의 공포를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죽음 직전까지 가는 두려움과 공포심에 못 이겨 없는 죄를 자백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로마시대에 기독교 핍박을 당할 때에도 배교를 시키기 위해 죽음의 공포를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굶주린 사자 굴에 던지기도 했고 참수형을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기름이 펄펄 끓는 가마를 보여주면서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배교하라고 했습니다. 안하면 그 곳에 집어던지겠다고 협박을 했습니다. 심지어 더 잔인한 경우는 부모가 배교를 하지 않는다고 부모가 보는 앞에서 어린 자식을 가마에 던지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어린 자식이 기름이 끓는 가마에 던져질 것을 생각하는 것은 정말 말로 표현 못 할 공포입니다.

오늘의 본문 중 부활 장으로 불리우는 고전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죽음의 공포를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쓰는 것>은 전갈과 같은 독충이 지닌 치명적인 독침을 가리킵니다. 그만큼 죽음의 고통은 치명적이며 견디기 힘든 순간입니다. 그렇다면 이 죽음의 공포는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요?

성경은 이 죽음의 공포가 마귀로부터 왔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후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동산을 잘 관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창2:17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말합니다.

마귀는 아담과 이브를 유혹하여 선악과를 따먹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이브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평화로운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하였고 그 결과 하나님을 피하게 만들었습니다. 피하여 숨어 있는 아담을 찾을 때 아담은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고 했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지은 범죄로 인하여 아담의 후손들은 죽음에 대한 공포심

을 늘 마음에 갖고 삽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마귀가 가져온 형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죽음은 어떤 고통을 줍니까?

1. 인간관계의 단절이 주는 공포입니다. 심리적인 고통입니다.

인간을 만드실 때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우리는 복수입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의견을 합하여 좋은 관계 속에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간은 본질적으로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관계가 아름다우면 천국의 맛을 보게 됩니다.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냐고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눅17:20-21입니다. 20.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그 곳에 즉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평화의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에 천국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롬 14:17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처럼 인간은 관계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회적인 동물입니다. 이런 관계성을 갖고 사는 인간에게 모든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 그 자체가 큰 고통입니다.

이즘은 웬만하면 외식을 하고 싶어도 참습니다. 혹시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다가 감염이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불안함에서 더 합니다. 이즘은 주부들은 집에서 돌밥을 만드느라 정말 수고가 많다고 합니다. 돌밥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지요? 외식을 하지 않고 집에서 3끼 식사를 하니 밥을 먹고 나서 설거지 등 정리하고 돌아서면 또 다음 식사와 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돌아서면 밥을 또 지어야 한다고 해서 돌밥 돌밥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19의 감염을 막기 위하여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한 2-3주 정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짧은 격리하는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울적해질 때가 종종 있었습

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성도들을 만나지 못하고 거리를 둔다는 것이 참 고통입니다. 과거 역사의 기록에 보면 큰 죄를 지은 자들을 가족과 친지들로부터 분리시켜 아주 먼 외딴 곳으로 유배시키는 일이 얼마나 큰 형벌인가를 새삼 느꼈습니다. 정적들을 가택 안에 연금시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되는 마귀적인 죄인가를 생각했습니다. 모든 관계가 단절이 되었을 때 얼마나 그 안에서 힘이 들었을까,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오는 단절은 이보다 더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더 이상 만나지 못 한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자식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한다는 내가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고통은 마귀가 가져온 것입니다. 그 아픔을 이기지 못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뒤 너무나 힘들어 스스로 목숨을 버리는 자도 있습니다. 마귀가 가져온 죽음의 고통입니다.

2.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영적인 고통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은 전도서 3:11을 통해서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그 마음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영적인 동물입니다. 종교적인 존재입니다. 마음속에 영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도 죽음을 앞에 두면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안에서 작동합니다.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해서 불안해집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의 일입니다. 성도 한 분이 수술하여 입원한 병원에 심방을 갔습니다. 그런데 칸막이를 친 옆의 환자가 지르는 소리에 심방을 지탱할 수가 없었습니다. 옆의 환자는 너무 고통에 못 이겨 간호하는 아내에게 욕두문자를 사용하면서 심한 욕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양칼졌습니다.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목사인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 이분이 죽음의 고통을 앞두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고 있구나, 생각했습니다.

우선 이분을 안정시켜야 우리 성도심방을 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열고 그 분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옆에 있는 환자가 다니는 교회목사인데 잠시 기도해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물으니 아내 되는 분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남편도 조용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환자가 고통이 너무 심합니다. 마음이 두려워합니다. 주님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 아주 잠잠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야 입원한 우리교회 성도에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한 후 심방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병실을 나오는 데 다시 심하게 악을 쓰면서 아내에게 욕하는 남자분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 내세에 대한 불안함이 저 분을 저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주님을 영접하면 이길 수가 있을 텐데...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히9:27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5:29입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반드시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고통입니다. 특히 악한 일을 행한 자에게는 더욱 무서운 고통입니다.

3. 육체적인 고통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입니다. 인간의 육신은 흠으로 왔다가 흠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갈 때 아무런 고통도 없이 잠을 자는 것처럼 돌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죽음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합니다.

현대인들이 많이 걸리는 암은 그 세포가 인간의 몸의 영양분을 다 빼앗아 갈 때까지 활동합니다. 자기 주인의 몸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동반합니다. 정신은 맑은 데 육체는 고통입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이루게 합니다. 몸을 이리저리 뒤척거리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위암으로 투병생활 하다가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간 친구가 항암치료를 받고 퇴원한 후에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많이 힘이 들었지 하고 물으니 평소 조용하면서 말이 많지 않던 그 친구가 항암 치료를 받는 일이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고통스럽다, 고 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 죽음까지도 생각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말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이런 육체적인 고통은 사탄이 가져온 것입니다.

이처럼 죽음은 모든 것에서 단절된다는 심리적인 고통과 내세에 대한 불안함과 심판에 대한 영적인 두려움과 육체적인 고통을 줍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이런 고통가운데 살도록 창

조하지 않았습니다. 평강가운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죽음은 사탄이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일을 정복하기 위하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은 사탄을 정복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고전 15:25-26입니다. "25.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26.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정복당하고 나면 그 마귀가 가져온 사망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은 계속 말합니다. 55-57입니다. "55.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쓰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 사망이 쓰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5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사망이 주는 모든 고통에서 승리하여 감사의 찬송을 올릴 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부활의 신앙은 죽음의 고통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합니까?

먼저 관계가 단절되는 아픔의 시간에 성령은 늘 함께 하여주십니다. 주님은 세상 끝 날까지 함께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명칭은 페라크레토스입니다. 곁에 계신 위로자입니다. 그 성령은 주님을 믿는 자들 곁에 함께 하시며 늘 동행하시며 위로해 주십니다. 죽음의 순간에도 함께 하여 주시며 마음을 크게 위로하여 주십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요한 웨슬레는 죽음 직전에 이렇게 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무엇보다 기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모든 게 단절되는 아픔이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기에 고통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특히 주안에서 다시 만날 소망으로 모든 고통을 이기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죽음을 앞두고 성도들은 잠시 헤어졌다가 다시 만나자고 말하면서 고별의 인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세의 심판에 대한 모든 두려움에서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하면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내세의 심판에 대해서 죽음

은 인간을 두렵게 만듭니다. 나 같은 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가?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는가? 마귀는 그렇게 비난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대적을 하겠는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아들을 주셨으니 그 아들이 가진 모든 것을 다함께 누리게 됩니다. 주님을 믿으면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 누구도 마귀도 고발을 못합니다.

특히 롬8:34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주님은 믿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셔서 그들이 고통의 순간에 영생을 보게 하면서 죽음의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힘이 됩니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가 실 맘 있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 구주 예수라."

육체의 고통에서는 어떻게 이기게 하여 주십니까? 육체의 고통 못지않게 하늘에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입니다. 예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하늘나라를 설교하자 유대인들이 귀를 막고 달려들어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을 누가는 <자니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니라>의 영어번역(NIV)은 <fell asleep>입니다. <깊은 잠에 평안함 잠에 골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눈을 뜨는 부활을 암시해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편안할 수가 있을 까요? 고통의 직전에 찬란한 영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행7:55-56을 보겠습니다. "55.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56.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 대."

스테반은 부활의 주님이 계신 찬란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의 기쁨이 육체적인 고통을 다 이기게 해줍니다. 오늘도 주님은 육체적인 죽음의 고통을 당하는 자들에게 죽음 직전에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셔서 다 이기게 하시면서 평안히 잠들게 하여 주십니다.

작년에 경민이가 보여준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우리 모두에게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도 의식이 사라지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경민이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평안한 마음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목사인 나도 과연 저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마저 들게 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했을 까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했기 때문입니다. 수없이 심방을 가면서 제가 경민이에게 준 마지막 성경말씀이 오늘 본문 롬8:35-39입니다.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39.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말씀을 읽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하면서 "경민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렇게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평안히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마귀가 가져온 가장 흉악한 죽음을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이기신 날입니다. 죽음의 문제도 이기게 한 부활의 주님은 그 모든 고통과 환란에서도 다 이기에 하여 주십니다. 모든 것이 다 단절되는 고통의 순간에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영생의 확신을 주시면서 내세의 심판의 두려움에서 이기고 승리의 찬양을 부르게 하여 주십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에서도 찬란한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그것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십니다.

4월의 묵회 주제는 "부활의 신앙. 승리하는 성도"입니다. 묵상 말씀은 롬8:37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넉넉히 모든 고통 속에서도 이깁니다. 이 코로나의 고통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자들입니다.